

예비자 교리 교안 8 (1 월 7 일)

소외된 사람들

1. 예수님은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운명이 바뀌었다.

- ◆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 신체장애자, 과부, 고아
- ◆ 율법적 죄인들 - 창녀, 세리, 고리대금업자, 강도 등
- ◆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고질병자, 마귀 들린 이
- ◆ 희망을 잃고 살거나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사는 건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 장 17 절

2. 우리(신자,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행위는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경제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
- ◆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배척하신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2).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루카 11,41).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 2,15-16) 등
- ◆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정신은 구약의 완성이다.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각종 법적 수단들 - 빚을 탕감해 주는 해, 이자와 담보의 금지, 십일조의 의무, 하루 벌이 일꾼의 품삯을 매일 지불하는 것, 남은 포도와 이삭을 주울 권리 등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며 또한 "너희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신명 15,11)라는 구약말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예표들이다.

3.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난의 의미는 이 세상에 실존하는 극도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는 해방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영적 가난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구의 곳곳에서 물질적 가난으로 굶주리고 비인간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어 같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반면 우리 스스로는 지나친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로부터 탈피된 소박한 삶을 살면서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겸손) 자세를 가져야 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 장 3 절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마태 19 장 24 절